

2023년도 지방직 한국사(B책형)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①	③	②	②	③
6	7	8	9	10
①	④	④	④	④
11	12	13	14	15
④	④	①	③	②
16	17	18	19	20
④	④	③	③	④

1 - 구석기 시대

1. 밑줄 친 '주먹도끼'가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언저리에 넓게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그 존재 유무로 유럽과 동아시아 문화가 나뉘어진다고 한 모비우스의 학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 ①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집 등에서 살았다.
- ② 내부에 화덕이 있는 움집이 일반적인 주거 형태였다.
- ③ 토기를 만들어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량을 저장하였다.
- ④ 구릉에 마을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목책을 둘렀다.

정답> ①

'이 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언저리에 넓게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곳에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그 존재 유무로 유럽과 동아시아 문화가 나뉘어진다고 한 모비우스의 학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사용된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박편도끼와 함께 발견되었다. 한 미군 병사가 발견하였는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발견으로 인하여 동아시아 구석기 시대에는 짝개 문화만 존재하고 주먹도끼 문화는 없었다는 모비우스(H. Movius)*의 학설을 뒤집는 증거가 되었다.

*모비우스(Hallam L. Movius, 1907~1987): 미국의 고고학자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집 등에서 살았다.

오답 해설>

② 내부에 화덕이 있는 움집이 일반적인 주거 형태였던 시대는 신석기 시대이다.

③ 토기를 만들어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량을 저장한 시대 역시 신석기 시대이다.

④ 구릉에 마을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목책을 둘렀던 시대는 청동기 시대이다. 도랑인 환호(環濠)와 목책, 망루 등은 청동기 시대의 마을 방어 시설[유적]이다.

2 - 삼별초

2.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대몽
항전에 적극적이었던 (가)은/는 개경 환도를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어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항쟁을
전개하였다.

- ① 포수, 사수, 활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 ② 윤관의 건의로 편성된 기병 중심의 부대였다.
- ③ 도적을 잡기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시작되었다.
- ④ 양계 지방에서 국경 지역 방어를 맡았던 상비적인 전투부대였다.

정답> ③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대몽 항전에 적극적이었던 (가)은/는 개경 환도를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어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항쟁을 전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삼별초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삼별초는 고려 무신 정권기, 특히 최씨 무신 정권기의 특수 부대이다. 처음 최우(?~1249, 집권 1219~1249)가 도적을 잡기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발전하여 좌별초와 우별초,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병사들로 조직된 신의군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1232~1273).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그리고 삼별초는 고려 원종 11년인 1270년 조정의 개경 환도령에 반기를 들고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며 몽골에 3년여 간 저항하였다(1270~1273). 배중손(?~1271)이 이끄는 삼별초가 (전남 진도의) 용장산성에서 항전하였고(진도 삼별초, 1270.6~

1271.5). 배중손이 전사한 후에는 김통정(?~1273)이 삼별초를 이끌고 다시 제주도로 옮겨가 항전하였다(제주도 삼별초, 1271.6~1273.2).

오답 해설>

- ①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된 군사 조직은 조선 시대의 훈련도감이다(1593, 선조 26).
- ② 윤관(1040~1111)의 건의로 편성된 기병 중심의 부대는 별무반이다(1104, 고려 숙종 9).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승병)으로 편성되었다(여진족의 침입 대비).
- ④ (북방의) 양계 지역에서 국경 지역 방어를 맡았던 상비적인 전투 부대는 주진군이다(지방군). 주진군은 양계의 상비군으로 좌군, 우군, 초군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로 주현군은 5도에 주둔한 군인이다(지방군).

3 - 면암 최익현

3.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은?

일단 강화를 뺀다고 하면 저 적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 (중략) ...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洋賊)입니다. 강화의 일이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邪學)의 서적과 천주의 상(像)이 교역하는 가운데 섞여 들어갈 것입니다.

- ① 박규수 ② 최익현
③ 김홍집 ④ 김윤식

정답> ②

'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 적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洋賊)입니다. 강화의 일이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邪學)의 서적과 천주의 상(像)이 교역하는 가운데 섞여 들어갈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유명한 면암 최익현(1833~1906)의 '병자지부복궐소'임을 알 수 있다(1876.1). 강화도 조약 체결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당시 최익현은 다섯 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개항에 반대하였다(위정척사 운동).

오답 해설>

- ① 환재 박규수(1807~1876)는 개화사상의 선구자로 연암 박지원(1737~1805)의 손자이기도 하다.
- ③ 도원 김홍집(1842~1896)은 제2차 수신사로 활약하였으며, 갑오개혁 당시 총리대신으로 개혁을 주도하였다.
- ④ 윤양 김윤식(1835~1922)은 온건 개화파로, 영선사로 청에 파견된 바 있다(1881.9~1882.11).

4 - 독립신문

4.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문은?

- 서재필이 정부 지원을 받아 창간하였다.
- 한글판을 발행하여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소개하였다.
- 영문판을 발행하여 국내 사정을 외국인에게도 전달하였다.

- ① 제국신문 ② 독립신문
- ③ 한성순보 ④ 황성신문

정답> ②

위에 '서재필이 정부 지원을 받아 창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운데에 '한글판을 발행하여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소개하였다'는 내용과 아래에 '영문판을 발행하여 국내 사정을 외국인에게도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독립신문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96.4).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한글과 영문으로 만들었다. 근대 사상과 학문, 국권·민권 사상을 고취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제국신문은 순한글로 만들어 하층민과 부녀자들이 많이 구독하였다(1898~1910).
- ③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 박문국에서 관보로 10일에 한 번 한문으로 발행되었다(1883.9). 갑신정변 때 사옥과 활자·인쇄 시설 등이 모두 불에 타버려 부득이 1년 만에 종간되었다. 이후 1886년 1월에 한성주보로 제호를 바꾸어 주간신문으로 다시 발간되었다.
- ④ 황성신문은 남궁억(1863~1939)이 국한문 혼용체로 발행하였으며 주 독자층이 양반 유생들이었다. 을사늑약을 반대한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한 바 있다(1898~1910).

5 - 백제 근초고왕과 신라 진흥왕의 업적

5. (가), (나)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삼국의 역사서로는 고구려에 『유기』가 있었는데, 영양왕 때 이문진이 이를 간추려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백제에서는 (가) 시기에 고흥이 『서기』를, 신라에서는 (나) 시기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 ① (가) -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 ② (가) -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공인하였다.
- ③ (나) -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 ④ (나) - 병부를 처음으로 설치하여 군권을 장악하였다.

정답> ③

'삼국의 역사서로는 고구려에 『유기』가 있었는데, 영양왕 때 이문진이 이를 간추려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백제에서는 (가) 시기에 고흥이 『서기』를, 신라에서는 (나) 시기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백제의 박사 고흥(?~?)이 『서기』를 편찬한 것은 근초고왕 30년인 375년의 일이고, 신라의 거칠부(?~579)가 『국사』를 편찬한 것은 진흥왕 6년인 545년의 일이다.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한 왕은 신라의 제24대 왕인 진흥왕(재위 540~576)이다(576, 진흥왕 37).

오답 해설>

- 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것은 백제 성왕 16년인 536년의 일이다(사비 천도).
- ②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공인한 것은 백제 침류왕 원년인 384년의 일이다(동진의 마라난타).
- ④ 병부를 처음으로 설치하여 군권을 장악한 것은 신라 법흥왕 4년인 517년의 일이다.

6 - 사택지적비

6. 다음 문화재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택지적비 - 백제가 영산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하였다.
- ② 임신서기석 - 신라에서 청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다.
- ③ 충주 고구려비 - 고구려가 5세기에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 ④ 호우명 그릇 - 5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정답> ①

문화재와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의 연결을 묻는 문제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고 있다.

백제 부여의 사택지적비는 백제의 귀족인 사택지적(?~?)이 인생의 무상함을 슬퍼하여 불교에 귀의하고 원찰을 건립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654(의자왕 14) 추정]. 백제 금석문을 대표하는 귀중한 자료로 백제의 수준 높은 문화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백제가 영산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한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

*2014년 지방직에서는 삼국 시대 금석문 자료로 사택지적비가 제시된 후 '사택지적비를 통해 당시 백제가 도가(道家)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가 옳은 설명으로 나와 있다.

오답 해설>

② 임신서기석을 통해 신라에서 청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신서기석에는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부터 3년 이후까지 충도(忠道)를 지키고 잘못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약 이 서약을 어기면 하늘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진흥왕 13년인 552년 또는 진평왕 34년인 612년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

③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고구려가 5세기에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충주 고구려비는 장수왕이 충북 충주 지역에 진출하여 세운 비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을 알려주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 비이다(449, 장수왕 37). 신라를 동이(東夷)라고 낮춰부르고 있다.

④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호우명 그릇을 통해 5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호우명 그릇[호우총 청동 그릇] 밑바닥에 '광개토 태왕'이라 적힌 명문이 있다[415(장수왕 3),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

7 - 홍의장군 광재우

7. 밑줄 친 '광재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 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중략)… 도내의 거족(巨族)으로 명망 있는 사람과 유생 등이 조정의 명을 받들어 의(義)를 부르짖고 일어나니 소문을 들은 자들은 격동하여 원근에서 이에 응모하였다. …(중략)… 호남의 고경명·김천일, 영남의 광재우·정인홍, 호서의 조현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

—『선조수정실록』—

- ① 홍의장군이라 칭하였다.
- ② 의령을 거점으로 봉기하였다.
- ③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 ④ 익숙한 지리를 활용한 기습 작전으로 일본군에 타격을 주었다.

정답> ④

'여러 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중략)… 도내의 거족(巨族)으로 명망 있는 사람과 유생 등이 조정의 명을 받들어 의(義)를 부르짖고 일어나니 소문을 들은 자들은 격동하여 원근에서 이에 응모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호남의 고경명·김천일, 영남의 광재우·정인홍, 호서의 조현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였을 때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던 인물은 충장공 권율(1537~1599)이다. 덧붙여 행주 대첩이 있었던 것은 1593년(선조 26) 2월의 일이다. 행주산성은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산 정상에 위치하였다.

오답 해설>

① 충익공 망우당 광재우(1552~1617)는 붉은 옷을 입고 선두에서 많은 일본군을 무찔러 홍의장군이라 불렸다.

② 광재우는 임진왜란 당시 자신의 고향 경남 의령에서 군사를 모아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통솔력이 강하고 애국심과 실천력이 뛰어났으며, 정암진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1592.7).

③ 광재우는 정암진 전투에서 익숙한 지리를 활용한 기습 작전으로 일본군에 타격을 주었다.

8 - 국채 보상 운동

8.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전개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대한 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에서 갚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미 삼천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

—『대한매일신보』—

- ①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였다.
- ②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였다.
- ③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정답> ④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대한 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에서 갚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미 삼천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1907년 2월부터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1908.7).

국채 보상 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국채 보상 운동 기성회 조직).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의 언론이 적극적으로 도왔다.

오답 해설>

- ① 조선 형평사가 경남 진주에서 조직된 것은 1923년 4월의 일이다(형평 운동).
- ② 조선 물산 장려회가 평양에서 처음 조직된 것은 1920년 8월의 일이다. 또한 1923년 1월 서울에서도 같은 명칭의 조선 물산 장려회가 조직되었다(물산 장려 운동).
- ③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전개한 것은 기독교계이다(신앙 수호를 위한 항일 운동). 1935년 11월 평양 기독교계 사립학교장 신사 참배 거부 사건에서 비롯되어 일제가 패망하는 1945년까지 계속되었다(1935~1945). 일제는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을 세워 일반 신도들의 신사 참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일부 학교와 교단에서는 굴복하기도 하였으나 저항하여 스스로 폐교하거나 '신사 참배 강요 금지 청원 운동' 또는 '신사 참배 거부 권유 운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9 - 조선 시대 과거 제도

9.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조선시대 과거 제도에는 문과·무과·잡과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문과를 가장 중시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문과 시험 업무는 (가)에서 주관하고, 정기 시험인 식년시는 (나)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 (가) | (나) |
|------|-----|
| ① 이조 | 2년 |
| ② 이조 | 3년 |
| ③ 예조 | 2년 |
| ④ 예조 | 3년 |

정답> ④

'조선 시대 과거 제도에는 문과·무과·잡과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문과를 가장 중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경국대전』에 따르면 문과 시험 업무는 (가)에서 주관하고, 정기 시험인 식년시는 (나)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문과* 시험 업무 자체는 예조**에서 맡아 보았고, 식년시는 3년마다 시행되는 정기시이다.

*문과: 문반 관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으로, 『경국대전』에 응시 자격, 고시 과목, 급제자 배출, 급제자 관직 제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 후기인 영조 22년(1746)에 편찬된 『속대전』에서는 식년시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별시가 법제화되었다.

**예조(禮曹): 중앙 관청인 육조[6조]의 하나로 예의, 제향, 조회, 교빙, 학교, 과거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남광(南宮)·춘관(春官)이라고도 하였다. 이조(吏曹)는 문선(문관의 선임), 고훈(공훈의 사정), 고공(관리 성적의 평정) 등의 일을 관장하였으며 육조 중 수석 관서라 하여 천관(天官)이라고도 불렀다[이 외 동전(東銓)·문부(文部)·선부(選部)·전리(典理) 등의 별칭도 있음]. 또 이조의 관원을 전관(銓官)이라 불렀다.

<10번 문제 해설>

③ 제헌 국회에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한 것은 1948년 7월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이승만(1875~1965)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7월 20일이고, 이시영(1869~1953)을 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7월 24일이다.

10 - 좌우 합작 7원칙 발표 이후의 사실

10. 다음 원칙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 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 토지 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채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 …(중략)…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 입법 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 방법 운영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 ①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4·19 혁명이 일어났다.
- ②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포되었다.
- ③ 제헌 국회에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하였다.
- ④ 임시 민주 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정답> ④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 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토지 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채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 …(중략)…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과 '입법 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 방법 운영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이 차례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좌우 합작 위원회가 1946년 10월에 발표한 좌우 합작 7원칙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946.10.7)(위에서부터 첫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원칙에 해당).

임시 민주 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1946년 3월의 일이다(1946.3.20~5.9). 하지만 미·소 양측의 의견 차이(협의 대상 선정 문제)로 미소 공동 위원회는 결렬되고 말았다.

오답 해설>

- ① 3·15 부정 선거에 대항하여 4·19 혁명이 일어난 것은 1960년의 일이다.
- ②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포된 것은 1948년 9월 22일의 일이다(같은 해 9월 7일 제정).

11 - 대각국사 의천

11.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여 선종까지 포섭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교단은 다시 분열되었고, 권력층과 밀착되어 타락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 ① 이론적인 교리 공부와 실천적인 수행을 아우를 것을 주장하였다.
- ② 참선과 독경은 물론 노동에도 힘을 쓰자고 하면서 결사를 제창하였다.
- ③ 삼국시대 이래 고승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고승전』을 편찬하였다.
- ④ 백련사를 결성하여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참회와 염불 수행을 강조하였다.

정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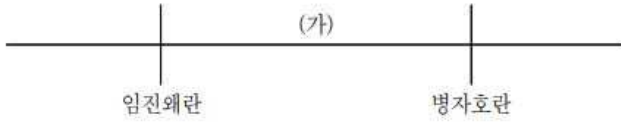
'그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여 선종까지 포섭하려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러나 그의 사후에 교단은 다시 분열되었고, 권력층과 밀착되어 타락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그'는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숙종 2년인 1097년에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 창시). 이론적인 교리 공부와 실천적인 수행을 아우를 것을 주장한 인물이 바로 의천이다(이른바 '교관겸수' 제시).

오답 해설>

- ② (송광사를 중심으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참선[선 수행]과 독경은 물론 노동에도 힘을 쓰자고 하면서 결사를 제창한 인물은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다. 지눌은 이미 그 전인 명종 20년인 1190년에 권수정혜결사문을 발표한 바 있다.
- ③ 삼국 시대 이래 고승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고승전』을 편찬한 인물은 각훈(?~?)이다(1215, 고려 고종 2).
- ④ (신앙 결사체인) 백련사를 결성하여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참회와 염불 수행을 강조한 인물은 원묘국사 묘제(1163~1245)이다. 고종 3년인 1216년에 강진 만덕산에서 본격적으로 백련사 결사를 결행하여 고종 19년인 1232년에 보현도량을 개설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12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의 사실

12.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조반정이 발생하였다.
- ② 영창 대군이 사망하였다.
- ③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하였다.
- ④ 청에 인질로 끌려갔던 봉림 대군이 귀국하였다.

정답> ④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은 조선 선조 25년인 1592년의 일이고, 병자호란이 발발한 것은 인조 14년인 1636년의 일이다.

병자호란 때 청에 인질로 끌려갔던 봉림 대군 [1619~1659, 이후 효종(재위 1649~1659, 제17대)]이 귀국한 것은 인조 23년인 1645년 5월의 일이다 (같은 해 2월에 먼저 귀국하였던 소현 세자가 4월에 급사).

오답 해설>

- ① 인조반정이 발생한 것은 광해군 15년인 1623년의 일이다.
- ② 영창 대군(1606~1614)이 사망한 것은 광해군 6년인 1614년의 일이다.
- ③ 강홍립(1560~1627)이 후금에 항복한 것은 광해군 11년인 1619년의 일이다(사르후 전투).

13 - 강화도의 유적

13. 여름 휴가를 맞아 강화도로 답사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다음 중 유적(지)과 주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유적(지)	주제
① 외규장각	동학 농민 운동
② 고려궁지	대몽 항쟁
③ 고인돌	청동기 문화
④ 광성보	신미양요

정답> ①

강화도의 유적과 관련 주제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

외규장각은 동학 농민 운동이 아니라 고종 3년인 1866년 10월에 발생한 병인양요와 관련이 있다 (~1866.11).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도의 주요 시설을 불태우고 외규장각에 있던 각종 왕실 관련 도서를 약탈하였다.

오답 해설>

- ② 강화 고려궁지는 대몽 항쟁 때의 궁궐터이다 [1232(고려 고종 19)~1270(고려 원종 11)].
- ③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 ④ 광성보는 고종 8년인 1871년 4월(양력으로 6월)에 발생한 신미양요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이다. 진무 중군 어재연(1823~1871)을 비롯한 350여 명이 순국하였다.

14 - 조선 시대의 붕당

14. 조선시대 붕당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조 대 -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하였다.
- ② 광해군 대 - 북인이 집권하였다.
- ③ 인조 대 - 남인이 정권을 독점하였다.
- ④ 숙종 대 -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정답> ③

조선 시대의 붕당의 상황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광해군 15년인 1623년 3월에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인조가 즉위하였고, 이후 인조 대(재위 1623-1649, 제16대)에 정권을 독점한 붕당[집권 세력]은 (남인이 아니라) 서인이다.

오답 해설>

- 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한 것은 선조 대이다(1575, 선조 8). 이조 전랑직 문제로 인한 갈등이 계기가 되었다.
- ② 광해군 대에는 북인이 집권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1680년(숙종 6) 경신환국[경신대출척] 이후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서인이 강·온 양 파로 분리되면서 발생하였다. 이때 강경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노장파로 노론, 온건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소장파로 소론이다. 1683년에 노장파인 김익훈이 남인을 강력히 탄압하자 소장파인 한태동 등이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 결정적인 발단이 되었다.

15 - 조선 세종 대의 사실

15. 조선 세종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인자를 주조하였다.
- ② 화통도감을 설치하였다.
- ③ 역법서인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 ④ 간의를 만들어 천체를 관측하였다.

정답> ②

조선 세종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이다.

화통도감이 설치된 것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개량된 금속 활자인) 갑인자가 주조된 것은 조선 세종 16년인 1434년의 일이다.
- ③ 역법서인 『칠정산』이 편찬된 것은 조선 세종 26년인 1444년의 일이다.
- ④ 간의(簡儀)를 만들어 천체를 관측한 것은 조선 세종 19년인 1437년의 일이다. 간의는 오늘날의 각도기(角度器)와 비슷한 구조를 가졌으며, 혼천의를 간소화한 것이다. 행성과 별의 위치, 시간의 측정, 고도와 방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조선 시대의 천문 관측 기기 중 하나이다. 대간의와 소간의를 만들었다.

16 - 신간회의 활동

16.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 .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 .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 ①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를 창립하였다.
- ②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 ③ 6·10 만세 운동을 사전에 계획하였다.
- 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정답> ④

주어진 자료(강령)에 '—.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를 발표한 단체는 신간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신간회는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민족 협동 전선 차원에서 힘을 합쳐 결성된 단체이다(1927.2.15).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조사단을 파견하였다(1929.11). 참고로 신간회 중앙 본부에서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계기로 삼아 언론 및 종교 세력, 청년 및 노동 단체 등과 함께 대규모의 민중 대회를 준비하였으나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조병옥, 이관용, 허헌 등 다수의 간부들이 체포되었다(1929.12.13, 이른바 '민중 대회 사건').

오답 해설>

- ①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가 창립된 것은 1922년 11월의 일이다. 이듬해인 1923년 3월에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 발기[창립] 총회가 열렸다(민립 대학 설립 운동).
- ②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단체는 신한 청년당이다(1918.8). 그리고 독립 청원서를 제출한 인물은 신한 청년당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표 자격의 우사 김규식(1881~1950)이다(1919.5.12).
- ③ 6·10 만세 운동을 사전에 계획한 이들은 천도교와 사회주의(조선 공산당) 계열, 그리고 학생 단체이다. 하지만 중간에 천도교와 사회주의 계열의 지도부가 일제에 발각되어 사전 검거되는 바람에 학생 단체(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 등)가 만세 운동을 실행하였다.

17 - 이규보의 동명왕편

17.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神異)한 일을 많이 말한다. ... (중략) ...
지난 계축년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본기」를 보니 그 신기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신이나 환상이라고만 생각하였는데, 두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상이 아닌 성스러움이며, 귀신이 아닌 신성한 이야기였다.

- ① 사실의 기록보다 평가를 강조한 강목체 사서를 편찬하였다.
- ② 단군부터 고려 충렬왕 때까지의 역사를 서사시로 기록하였다.
- ③ 단군신화와 전설 등 민간에서 전승되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록하였다.
- ④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동명왕의 신이한 사적이 생략되어 있다고 평하였다.

정답> ④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神異)한 일을 많이 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지난 계축년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본기」를 보니 그 신기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신이나 환상이라고만 생각하였는데, 두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상이 아닌 성스러움이며, 귀신이 아닌 신성한 이야기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의 문신 이규보(1168~1241)가 지은 장편 영웅 서사시인 동명왕편의 서문임을 알 수 있다(1193, 고려 명종 23). 동명왕편은 무신 집권기의 사회 혼란 속에서 고려의 역사 전통을 고취할 목적으로 쓴 것이다(고려가 성인의 나라임을 밝힘).

동명왕편 서문에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동명왕의 신이한 사적이 생략되어 있다고 평하였다. 주어진 자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하물며 국사(國史)는 사실 그대로 쓴 글이니 어찌 함부로 전하였겠는가. 김부식 공은 국사를 다시 편찬할 때에 자못 그 일을 생략하였으니, 공은 국사란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므로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여겨 생략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답 해설>

① 사실의 기록보다 평가를 강조한 강목체* 사서로 최초의 것은 문신인 목헌 민지(1248~1326)의 『본조편년강목』을 들 수 있다(1317, 충숙왕 4). 『본조편년강목』은 줄여서 『편년강목』이라고도 하는데 『세대편년절요』를 보완하기 위해 편찬된 것으로 추정한다. 태조 왕건의 증조부인 문덕 대왕으로부터 고종 때까지의 사실들을 기록하였다.

*강목체: 역사를 연대순으로, 즉 연·월·일순에 따라 기술하되, 그중 중요한 것과 정통(正統)·의(義)에 합당하는 것들의 요체를 강(綱)으로 설정하여 큰 글씨로 기록하고, 부차적인 내용 또는 구체적인 사실 등은 목(目)으로 설정하여 작은 글씨로 기록하는 편년체 역사 서술 형식이다. 주희(1130~1200)의 『(자치)통감강목』이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강(綱)과 목(目)으로 나누어 편찬한, 강목체의 효시가 되는 사서이다. 줄여서 그냥 『강목』이라고도 부른다. 강목체를 편년체의 변종으로 보기도 한다.

② 동명왕편은 장편 영웅 서사시로, 동명왕 탄생 이전의 계보를 밝힌 서장(序章)과 출생에서 건국에 이르는 본장(本章), 그리고 후계자인 유리왕의 경력과 작가의 느낌을 붙인 종장(終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군부터 고려 충렬왕 때까지의 역사를 서사시로 기록한 것은 이승휴(1224~1300)의 제왕운기이다(1287, 고려 충렬왕 12).

③ 단군 신화와 전설 등 민간에서 전승되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록한 것은 『삼국유사』로 보각국사 일연(1206~1289)이 지었다(1285, 고려 충렬왕 11).

18 - 독립 의군부(임병찬)

18. 1910년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중국 화북 지방에서 조선 독립 동맹이 결성되었다.
- ② 만주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 3부가 조직되었다.
- ③ 임병찬이 주도한 독립 의군부는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조선 혁명군이 양세봉의 지휘 아래 영릉가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정답> ③

1910년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묻고 있다. 돈헌 임병찬(1851~1916)이 주도한 독립 의군부가 항일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1912년 9월부터이다(~1913.5).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되었으며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중국 화북 지방에서 조선 독립 동맹이 결성된 것은 1942년 7월의 일이다.
- ② 만주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 3부가 조직된 것은 1924년 6월에서 1925년 3월 사이이다(1924년 6월 참의부, 1924년 11월 정의부, 1925년 3월 신민부 조직).
- ④ 조선 혁명군이 양세봉의 지휘 아래 영릉가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것은 1932년 3월의 일이다(중국 항일 의용군과 연합한 한·중 연합 작전). 영릉가는 중국 랴오닝성[요령성] 신빈현에 위치한 지명이다.

19 - 사회경제사학자 백남운

19.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사적인 일원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 ① 민족정신으로서 조선 국혼을 강조하였다.
- ②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여 조선의 얼을 강조하였다.
- ③ 마르크스 유물 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를 연구하였다.
- ④ 진단 학회를 조직하여 문헌 고증을 중시하는 실증주의 사학을 정립하였다.

정답> ③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세계사적인 일원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주어진 자료는 사회경제사학자 백남운(1894~1979)이 쓴 『조선사회경제사』(1933)의 서문(머리글)의 일부이다(2020년도에 동일 자료 제시).

백남운은 마르크스 유물 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를 연구한 이른바 '사회경제사학자'이다(사회경제사학의 관점에서 역사 서술).

오답 해설>

- ① 민족정신으로서 조선 국혼을 강조한 인물은 민족주의 사학자 백암 박은식(1859~1925)이다.
- ②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여 조선의 얼을 강조한 인물은 민족주의 사학자 위당 정인보(1893~1950)이다. 1935년에 동아일보에 '오천년간 조선의 얼'을 연재하면서 '조선의 얼(민족의 얼)'을 강조하였다.
- ④ 진단 학회를 조직하여 문헌 고증을 중시하는 실증주의 사학을 정립한 인물은 여러 명이다(1934.5)(1934년 11월부터 진단 학보 발행). 대표적인 인물로 두계 이병도(1896~1989), 한희 이윤재(1888~1943), 일석 이희승(1896~1989), 남창 손진태(1900~?), 도남 조윤제(1904~1976) 등을 들 수 있다.

20 - 6·25 전쟁

20. 6·25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였다.
- ②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발췌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③ 이승만 정부가 북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 포로를 석방하였다.
- ④ 미국이 한반도를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애치슨 선언을 발표하였다.

정답> ④

6·25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1950.6.25~1953.7.27).

미국이 한반도를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애치슨 선언을 발표한 것은 1950년 1월의 일이다(1950.1.12). 애치슨 선언이란,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1893~1971)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알래스카[알류산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 선으로 한다고 언명한 것을 말한다(한국과 타이완, 인도차이나 반도 빠짐).

오답 해설>

- ①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한 것은 1950년 9월 15일의 일이다.
- 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발췌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1952년 7월의 일이다(1952.7.4)(같은 해 7월 7일 공포, 제1차 개헌이자 '발췌 개헌'). 이승만은 이를 통해 같은 해 8월 5일에 실시된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 ③ 이승만 정부가 북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 포로를 석방한 것은 1953년 6월의 일이다(1953.6.18).

- 이 상 -